

대선 공약사업 반영 등 총력전 펼쳐

전북도, 5개부처 상대로 국가예산 핵심 23개 사업 중점 설명·건의 등 대대적 활동 전개

전북도가 2018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부처예산 편성 단계에서 대선 공약사업 반영 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의 차관,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대선공약 연계사업, 부처 쟁점사업 등 도 국가예산 핵심 23개 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 및 건의하는 등 대대적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6일에 행정부지사 17일에는 정무부지사가 주요부처 실국장을 면담하는 등 전북도 지휘부가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다.

22일 송하진 지사는 국토부 제2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농식품부 차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대

선공약 사업의 전북도 연계사업 및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먼저,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 및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연달아 만나 대선 지역공약사업인 '새만금 SOC 구축 5개사업'의 조기 완공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김제육교의 재가설 사업'의 시급성과 한옥마을 등 관광객 증가로 인한 노후화된 '전주역사 전면개선'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임실~장수 국도' 및 '부안~흥덕 국도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방문해 전북지역 대선공약인 5대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개인의 대변을 가지고 정치료를 할 수 있는 '인체유용 미생물산업 육성(한국형 대변은행)

사업을 설명·건의했다.

해수부를 방문한 송 지사는 '군산항 항로준설'이 민간대행 개발로 지연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의 전환과 새만금에 국내기업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산업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대선지역 공약인 '탄소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를 방문한 송 지사는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과 '에타가 진행중인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공모사업인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사업'을 전 주.완주 혁신도시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9일 대선공약 사업 및 새정부 정책과제를 2018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내려주고 부처예산 제출 기한을 당초 2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2018년 정부예산안에 새정부 기조를 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 대선공약과 연관된 우리 도 국가예산사업이 부처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고, 부처와 이견이 있는 쟁점사업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며, "부처 예산편성 마감 D-10일 기점인 22일부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31일까지 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대선공약사업과 연계성, 새정부 정책과제와의 부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번주 차관 인사... 주요부처 후보는

행자부, 오동호·심덕섭·심보균
복지부, 권덕철 등 현재 4실장
교육부, 김원찬
고용노동부, 박종길·문기섭 등

회) 등도 차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주교, 한양대 경제학과,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마친후 보육정책관, 국립인공환경검역소장, 감사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3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올랐다.

이 인구정책실장은 농이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나와 공직에 입문한 이래 대변인, 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동대부고,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장으로 승진했다.

교육부 차관 후보에는 전현직 관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손발을 맞출 차관 후보로는 행시 28회 출신 김원찬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후보출신이다.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는 박종길 기획조정실장,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동정책실장, 안경덕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꼽힌다.

경남 진주 출신 박 실장은 행시 30회로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문 실장은 행시 32회로 영등포고와 고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임 실장 역시 행시 32회로 서울대를 나와 중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안 사무처장은 강원도 흥천 출신으로 행시 33회다. 춘천고, 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 아직 유력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현 정중계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행시 32회)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며 이재을 경기도 행정1부지사(행시30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가고시마 '韓스타일' 전북 매력에 흠뻑

전북도, 가고시마현에서 28일까지 한일문화카리반·한스타일 전시회

전북도는 20일부터 28일까지 주일한 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일본 교류지역인 가고시마현에서 한일문화카리반 및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고시마 현 한스타일 행사는 전북도의 해외교류지역 한스타일 전시사업과 주일한국대사관이 2016년부터 한일 지자체간 문화교류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일문화카리반 행사와 연계해 열리게 됐다.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전북도 문화 강좌로 시작됐다.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가 진행한 이번 문화강좌는 한지와 합죽선, 한글에 대한 강의 및 체험수업 등 2개 과정이 진행됐다.

사전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공모 하루만에 2개 과정이 모두 마감되는 등 가고시마 현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강좌에서 캘리그라피 전문가인 서재희 작가가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강연했고, 참가한 가고시마 현민들은 일본의 화지와 비교하며 문화수업을 경험했다.

이번 강좌 수강생이며 일본에서 한글강좌를 듣고 있다는 타미시세는 "아름다운 한글과 한지에 대해 배우

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글을 더욱 예쁘고 멋있게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겠다"며 한글과 한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가고시마현 시민문화홀 4층 갤러리에서는 28일까지 전북도와 가고시마 현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양 지역 대표관광지 사진전이 개최되며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작품이 전시되는 등 전북의 관광지를 가고시마 현에 알리는데 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약 2,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한지, 한식, 한소리, 한복을 전시해 전북의 한스타일이 가고시마 현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으며, 전북관광지 VR체험을 위해 긴 행렬이 이어지는 등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식전행사로 진행된 비빔밥 퍼포먼스에는 진흥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이준규 주일한국대사, 가고시마현 부지사, 한정의 제일전북도민회장, 이병철 국제교류센터장, 이마무라조리학교 이사장 등이 참여해 28주년을 맞이한 양 지역 교류행사를 빛냈다.

이준규 주일한국대사는 "그간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일본 지방 국민들이 한국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북 한 스타일 전시회와 비빔밥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풍성한



전북도는 20일부터 28일까지 주일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일본 교류지역인 가고시마현에서 한일문화카리반 및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회를 개최한다. 21일 식전행사로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흥 정무부지사, 이준규 주일한국대사, 가고시마현부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진흥 정무부지사는 "해외교류지역과의 문화행사는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파생시킨다"며 "많은 공동점과 공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양 지역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해외교류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후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도는 해외교류지역에서의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교류분야 확대 및 한문화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자매우호지역을 대상으로 한스타일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주꾸미 포획금지' 입법 예고 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교육

뉴스 어선과 연안허가 어선 간 어업 분쟁의 대상이 됐던 주꾸미 어획과 관련한 분쟁이, 주꾸미를 포획하는 제한 규정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를 포함한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체중 신장 및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꾸미의 경우 '포획 금지기간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포획 금지체중을 20그램 이하로 신장'하고, 갈치,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조정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22일 전북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도시군 소송 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소송지휘를 담당했던 박지원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의 절차 및 대응방법, 국가·행정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 소송실무 전반에 걸쳐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또한 박형운 변호사를 통해 일선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처분절차, 적용대상, 행정작용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사례를 가지고 실무교육을 가졌다. /인재용 기자

분묘개장공고

1. 분묘위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산211-1
2. 분묘기수: 5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소유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장소: 전북 남원시 솔터길 40-30(남원 승화당)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10일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유)춘향골장례식장 라병권(H.P: 010-9356-4141)
9. 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5월 23일
공고인 임 현 빈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